

# 전북여성경제인의 힘찬 도약 결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개최... 모범여성경제인 24명 표창

전북도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직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 19일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댄스공연 축하공연과 20주년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기관장 및 여성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모범여성경제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4개 업체가 도지사 표창을, 그 외 20개 업체가 전주·익산·군산시장, 완주군수상을 비롯한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999년 7월 창립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의 활동으로 여성 창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세계대여성 CEO교육 및 연수와 멘토링 등을 통해 여성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 19일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 국가경제를 이루는 여성 경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북 여성경제인은 5만 3359명으로, 기업인의 41%를 차지해 전국 평균 39%(143.3만명)를 웃도는 비율이다.

전국적으로도 여성기업의 경제 기여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분야에서도 전체 고용인원의 28%(약410만

명)을 여성기업이 창출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창업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전체 신설법인인의 25.4%(약2.6만개) 수준까지 증가했다.

전북도는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도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전북 경제 체질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북농협, 2년 연속 상반기 종합업무평가 1위 달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가 중앙본부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종합업무평가에서 작년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장근 본부장 취임 이후 '고객과 도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을 목표로 지역사회 금융공급 역할에 앞장서며 각 부문의 사업역량을 집중한 결과, 타도에 비해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상반기 종합업무평가 1위를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감소 전북으로 거듭났다.

먼저,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8,200억원의 기업자금을 신규로 지원했다.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5억 2,3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0~2%대의 저금리 협약대출 700억원

을 지원하는 등 든든한 우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은 상반기중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한 2,800억원을 공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 물품지원, 희망나눔 벽화그리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은행'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에 분포한 점포망의 잇점을 활용해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를, 환절기에는 미세먼지 쉼터를 상시 운영하며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히 쉬어 갈수 있는 지역밀착형 은행으로 다가가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2년 연속 1위 달성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전북도민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며 "건 강한 은행·지속성장하는 은행·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은행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한전 전북본부, 재난 월드 프로그램 체험 교육 실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은호)는 "2019년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을 맞아 지난 4일, 16일, 18일 세 차례에 신입 사원 및 협력회사 담당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소방 119 안전 체험관(임실군 소재)을 방문하여, '재난 월드 프로그램' 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평소 전력설비 재난과 관련해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시행됐다.

특히, 사회 경험을 시작하는 신입 사원 및 한전 협력회사 재난 안전 담

당자들에게 재난상황, 공사 현장에도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배양, 안전 의식 확립과 실천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은호 본부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태풍 체험, 방사능 대피 체험, 4D 재난 영상 체험 등 평소 시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언제든지 재난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안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최근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북은행 본점에서 도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제18회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윤종록 교수를 초청해 '소프트파워가 강한 기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종록교수가 강조한 소프트파워는 ▲소프트웨어 가치 중시 ▲끊임없는 혁신 ▲풍부한 상상력 ▲실제로부터 배우는 자세 ▲두뇌의 창의성 ▲유연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미래 산업은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 강한 하드파워가 아니라 상상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바마대통령이 강조한 개방형 혁신, 창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강연이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사회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보리'

### 한국식품연구원, 보리 어린잎에서 면역기능 증진 효능 확인

보리 어린잎으로부터 분리한 다당 성분이 우수한 면역기능 증진 효능과 함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 홍희도 책임연구원(전통식품연구단장) 연구팀은 보리 어린잎으로부터 면역기능 증진과 뼈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당체 성분을 발굴하고 소재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0~15cm 전후로 자란 보리 어린잎은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철 새싹채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클로로필 등의 기능성 성분과 함께 해독작용,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면서 분말이나 차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식품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기능성 성분 이외에도 보리 어린잎으로부터 분리한 고분

자 다당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면역기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뼈의 소실에 관여하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뼈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보리 어린잎 유래 다당 성분의 우수한 면역기능 증진 및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식품연이 이번에 소재화에 성공한 보리 어린잎 유래 신규 다당소재 'BLPI'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세포가 분비하는 면역조절물질(사이토카인)의 생성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소재는 주요 면역세포 가운데 하나인 T세포의 증식 및 T세포 활성 지표인 각종 면역조절물질의 생성량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상기자

## 전북중기청, 백년가계 인증 현판식 진행

###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 19일 익산시에 위치한 '무진장갈비촌'의 백년가계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전북지역본부와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행사종료후 업체대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현장소통 간담회도 진행됐다.

백년가계 현판식을 진행한 '무진장갈비촌'은 1987년부터 음식업을 시작하여 대표의 '정직, 정성'을 담아 전통방식으로 사골을 푹 고아 만든 갈비탕을 비롯해 좋은 식자재를 사용해 손님들의 오감과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모범음식점과 대물림맛집으로도 등록되어 있다.

'백년가계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승계를 포함하여 업력이 30년 이상 된 우수소상공인(도, 소매업, 음식점업)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백년가계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계에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

교육, 보증우대(100% 보증, 수수료 0.8% 고정),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우대(0.4% 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백년가계는 16곳이 선정 됐고 전국 대비(158개 업체) 10%를 점유하여 전국 17개 시, 도 중 충북, 서울에 이어 3번째 순위에 해당되며, 올해 4월에 1차 공유지원센터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행사종료후 업체대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현장소통 간담회도 진행됐다.

전북지방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소상공인 신규창업의 45%가 생존율이 낮은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등에 편중되어 있다"며, "무진장갈비촌이 백년가계로 선정되어 과밀업종에서 지속가능한 성공경영 사례를 창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년가계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100year@semas.or.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지경 주무관(063-210-6446)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